

순천 해룡산단 마그네슘 생산 본격화

9일 생산동 준공...시험분석실·시제품 생산장비 등 갖춰 2012년까지 1천500명 고용창출, 年 매출 5천억원 기대

순천시가 새로운 신소재 산업인 마그네슘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9일 해룡국민임대산단내에 마그네슘 생산동 준공식을 갖는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비와 지방비 135억원이 투입된 해룡 산단 내 마그네슘생산 동에는 11개 관련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부지면적 1만 4천939㎡, 연건축면적 8천336㎡ 규모의 단층 건물인 마그네슘생산 동에는 시험분석실과 시제품 생산장비와 측정장비 등이 갖춰져

입주 기업들을 지원한다.

마그네슘생산 동 준공으로 다양한 소재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교육훈련, 관련 자료 조사와 연구, 지원사업이 가능케 됐다.

특히 전남테크노파크는 울촌산단과 해룡국민임대산단 및 광양만권 철강, 여수지역 화학 등 동부지역에 소재 업체의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에는 해룡 산단에 포스코

마그네슘 관재공장이 들어서는 등 순천시가 마그네슘 생산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기반을 갖췄다.

마그네슘 소재는 무게가 철강의 25%에 불과한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재료로, 강도와 연성이 뛰어나 IT산업과 자동차, 전자제품, 레저용품 등의 부품으로 활용돼 수요가 다양하다.

또 재활용이 100% 가능하며 전자파차단 등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 소재로 꼽힌다.

순천시는 해룡 산단 내 포스코 마그네슘 관재공장과 생산 동에 입주할 11개 업체가 오는 2012년까지 1천5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간 매출액 5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중국 산시성 관계자와 광양만권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인 일본 산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전남 동부권 투자 유치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구례 전국체전 분위기 고조



구례군이 전국체전 개막을 알리고 봄 조성을 위해 도로 곳곳에 체전 기를 게 양했다. 구례 실내체육관에서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씨름경기가 열린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시민 없는 시민 공청회

순천시의회 농업발전 공청회 농민들 참여 저조...취지 무색

순천시의회가 농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으나 참석자들이 공무원과 농업 직원 일색이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7일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농업의 새로운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참석자 가운데 농민과 시민들은 극소수인 반면 관계공무원과 농업직원 80여명이 자리를 지켰으며 전문가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대신 주제 발표식 진행으로 2시간 30여분 동안 지리하게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모씨는 "농업 발전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주인공인 시민이 없는 공허한 공청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강철 순천시 농민회 사무국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장밋빛 농업정책으로 농민들만 믿어 들었다"며 "기초가 튼튼한 농업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의외 차원에서 이같은 공청회를 열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농민이어서 농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구례 농특산물 브랜드 '산수려' 확정

구례군 농특산물 브랜드 명칭이 '산수려'로 결정됐다.

구례군은 7일 군청 상합실에서 구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선정 위원회를 열고 구례군 공동 브랜드의 명칭을 '산수려'로 확정했다.

'산수려'는 맑고 아름다운 청정 구례의 수려한 자연 생명력으로 빛나는 우수 농특산물을 내포하고 있다.

구례군은 농산물 수입 개방과

유통시장의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속에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례군은 개발된 공동 브랜드를 구례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포장재 보급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시티·야간 유람선 투어 무료 운영합니다”

여수시, 11~15일 외래 방문객 대상

제 89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각 시·도 선수단 및 임원, 응원단 등 외래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수 시티투어 및 야간 선상유람선 투어가 무료 운영된다.

시티투어는 1일 2회 오전·오후로 나눠 진남 경기장을 출발해 오동도, 박람회 홍보관, 진남관, 특산물 전시판매장, 돌산대교, 해양수산 과학관, 향일암을 둘러 진남 경기장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다.

출발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2시이며 오후 코스에는 해양수산과학관, 향일암 방문 일정이 없다.

야간유람선 투어는 저녁 7시 30



분 오동도 음악분수대 앞에서 출발해 해양공원, 진남관, 돌산대교, 국동여항을 되돌아오는 코스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투어 희망자는 탐승 하루 전 오후 3시까지 여수시 관광과(061-690-2037)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법원에서 음악과 맥주 한잔 어때요”

순천지원, 14일 '호프미당과 작은 음악회' 열어

법원이 딱딱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호프 미당과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지원장 신재성)과 순천 YMCA는 오는 1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순천지원 주차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호프 미당과 작은 음악회'를 연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법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순천

지원이 올해 전국 우수법원으로 선정된 것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색소폰, 통기타, 바이올린, 거문고 연주와 청소년댄스, 삼악, 시낭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행사장 주변에서는 순천지원 여직원회가 시민들에게 맥주 한잔씩을 무료로 제공한다.

법원이 청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해 문화행사를 개최 하는 것은 매

우 이례적인 일로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재성 지원장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과 함께 열린 문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지원은 이날 행사에 앞서 리모델링한 종합민원실과 법정도 공개한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전직 형사가 살인 피의자 설득 자수시켜

순천경찰, 김모씨에 보상금

전직 형사가 살인 피의자를 설득 경찰에 자수시켰다.

순천경찰서(서장 이상기)는 지난 7일 범죄신고보상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살인사건 피의자를 설득해 자수시킨 전직 형사 김모(57)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여수경찰서에서 20여년간 형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퇴직한 김씨는 지난 달 9일 순천시 연향동에서 발생한 살

인사건 피의자 박모(57)씨가 범행후 여수 모텔에 있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2시간에 걸쳐 박씨를 설득해 순천경찰서에 자수시켰다.

이상기 순천경찰서장은 "오랜 형사 생활에서 나온 경험으로 박씨의 자수를 유도해 자칫 사건 장기화로 인한 시간·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시민들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본 부 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국장
	박양규 부장
	지광현 차장
	김은중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푸른호수, 푸른숲속
전원주택단지 선착순 본격분양 개시

자연IN

최순 사정리 전원주택마을

빛잇사무스 (062)653-9870

www.mvvd.com

아이엘리시아

상품권 판매, 출판사, 각종 모임 및 행사(100여종, 50%~20%할인)

062)671-1199